표지 동일

발간사

우리나라에 자립생활이 장애인들에게 전파되면서부터 동료상담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 이후 자립생활지원에 있어서 동료상담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자립생활을 실천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필요성은 더 중요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상담과 동료상담가 양성에 대한 표준화 된 자료가 많지 않았으며, 있더라도 일본 번역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또한 대부분이 집단동료상담에만 집중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개별동료상담이나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에 대한 표준교재의 부족으로 인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소속 동료상담가들의 어려움이 많았고 동료상담의 형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핵심인 동료상담이 평가 절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동료상담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동료상담의 리더로 활동해온 위원님들, 그리고 오랫동안 자립생활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동료상담의 이념과 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광주대학교 정 희경교수님과 함께 2015년도 동료상담 매뉴얼 개정판을 집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료상담매뉴얼은 총5장으로 구성 되었으며,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은 동료상담의 개요로 동료상담의 역사와 목적, 필요성, 구조, 그리고 동료상담가의 역할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이장에서는 동료상담가로 체계적인 지식을 함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장은 개별동료상담으로 개별동료상담의 정의, 목적, 방법, 유형별 개별동료상담, 진행과정 등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 중인 개별동료상담를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유형별 개별동료상담 진행과정을 익힘으로 지역 장애인들에게 구체저인 동료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3장에서는 집단동료상담으로 집단동료상담의 정의, 목적, 방법,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기술함으로서 집단동료상담과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의 목적과 그 차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장은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으로 입문강좌, 장기강좌, 양성강좌로 동료상담가가 되기 위한 3단계와 이수과목, 이수시간 등을 기술함으로서, 동료상담가가 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동료상담 지침으로 동료상담과정에 참가 자격기준, 리더 기준, 서브리더 기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동료상담 매뉴얼 내용 중에는 전국의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들이 학습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별동료상담을 새로 정리하여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집단동료상담이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인 것처럼 알고 참가하는 참가자도 많았으며, 집단동료상담을 진행하는 자립생활센터에서도 그렇게 알고 진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동료상담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 잡고자 개별동료상담, 집단동료상담,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상담 매뉴얼을 통하여 동료상담의 형식들이 현장에서 바로 잡아지길 바라며, 이번 동료상담 매뉴얼이 바탕이 되어 우리나라의 동료상담이 체계화되고 위상이 올라가서 동료상담의 효과성이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동료상담위원회

Contents

제Ⅰ장 : 개 요 ····· 3

1. 정의 ····· 3
2. 동료상담의 역사 ····· 3
   1) 사회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3. 동료상담의 필요성 ····· 4
4. 용어의 정리 ····· 5
   1) 관계 만들기(Relation)
   2) 새로웠던 것과 좋았던 것(New & Good)
   3) 세션(Session)
   4) 텐션 백(tension-back)
   5) 역할극(Role Play)
   6) 시현[示現](demonstration)
   7) 패턴(Pattern-성향[性向])
   8) 생각하기와 듣기 (think & listen)
   9) 좋았던 것 배웠던 것
   10) 칭찬하기 (어프리시에이션 Appreciation)
5. 동료상담의 목적 ····· 7
   1) 자기신뢰 회복
   2) 인간관계 재구축
   3) 사회 변화
6. 동료상담의 약속 ····· 8
   1) 시간을 대등하게 할 것
   2) 비밀엄수, 이야기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 것
   3) 부정하거나 비판을 하지 말 것
   4)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말 것
   5) 다음은 동료상담에서 지켜주기를 원하는 권고사항이다.
7. 동료상담의 자세 ····· 9
   1) 듣는 사람의 자세
   2) 말하는 사람의 자세

Contents

8. 동료상담의 구조 ····· 10
1) 개별상담
2) 집단동료상담
3)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9. 동료상담가의 역할 ····· 12
1) 내담 장애인의 감정해방을 위한 감정이입(empathy) 즉 공감형성
2) 사회 참여를 위한 내담 장애인의 역량(strength)을 강화
3) 신뢰를 바탕으로 내담 장애인과 '관계를 쌓아가는 일'
4) 동료지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필요

제Ⅱ장 개별동료상담 ····· 51
1. 개별동료상담의 정의 ····· 51
2. 개별동료상담의 목적 ····· 51
3. 개별동료상담의 방법 ····· 51
4. 유형별 개별동료상담 ····· 61
1) 재가 장애인
2) 중도장애인(후천적 장애인)
3) 시설 거주 장애인
4) 발달장애인
5. 개별동료상담 진행과정(센터의 역할 중심) ····· 81
1) 동료상담
2) 정보제공
3) 자립생활프로그램(ILP Independent Living Program) 과정

제Ⅲ장 집단동료상담 ····· 32
1. 집단동료상담의 정의 ····· 32
2. 집단동료상담의 목적 ····· 32
3. 집단동료상담의 필요성 ····· 32
4. 집단동료상담의 규칙 ····· 34
5. 진행과정 및 내용 ····· 34
1) 기초과정
2) 심화과정

Contents

제Ⅳ장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 13

1. 양성과정의 정의 ····· 13
2. 양성과정의 목적 ····· 13
3. 양성과정의 필요성 ····· 13
4. 양성과정에서의 유의사항 ····· 13
5. 양성과정의 이론과 실제 ····· 13

제Ⅴ장 동료상담가의 지침 ····· 14

1. 개별동료상담가의 자격기준 ····· 14
2. 집단동료상담 리더 및 서브리더의 자격기준 ····· 14
3. 집단동료상담 장기강좌 리더의 자격기준 ····· 24
   1) 리더
   2) 서브리더
4. 동료상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24
   1) 구성
   2) 역할
5. 리더와 서브리더의 역할 ····· 34
   1) 집단동료상담 리더
   2) 양성과정 리더
   3) 리더와 서브리더의 역할

동료상담가 강령

하나. 동료상담가는 모든 인간의 가치·평등·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

하나.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한다.

하나. 동료상담가는 어떠한 이유로도 장애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동료상담가는 자신이 사회적 역할 모델 또는 동료지지 및 지원자임을 확고히 한다.

하나. 동료상담가는 자신과 타인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한다.

하나. 동료상담가는 모든 인간의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나. 동료상담가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변성을 갖는다.

하나. 동료상담가는 모든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고 배려한다.

하나. 동료상담가는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엄수한다.

하나. 동료상담가는 경청, 공감, 수용을 기본자세로 하고 지속적인 자기성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장애를 가진 또는 격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가지며 장애사회 안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있어 분리, 배제, 권리침해 및 차별되어선 안 되는 존재다.

대한민국 헌법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I 장

개 요

제Ⅰ장 : 개 요

1. 정의

동료상담이란 장애라는 공통의 조건으로 인해 겪는 공통의 상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정한 규칙과 형식 안에서 진행되는 소통 및 대화를 말함.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지향하는 자립생활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험공유, 감정해방, 정보제공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량강화 및 자기주체성 회복을 위한 소통 및 대화를 말함.

2. 동료상담의 역사

1) 사회적 배경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자립생활운동이 시작되면서 동료상담이 주목받게 됨. 특히 자립생활이념의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버클리대 장애학생들의 모임인 롤링쿼드스(The Rolling Quads)를 들 수 있음.

롤링쿼드스의 장애학생들은 세계 각국의 장애인들과 교류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유사함을 알게 됨. 즉 장애를 가진 모든 개인들은 그들만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됨.

이후에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인 “원조”(helping) 전문가들이 장애에 대한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나 장애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의사 및 다른 “전문가(experts)들"은 장애 상태는 잘 알고 있으나, 장애인의 생활(living with a disability)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식함.

롤링쿼드스의 장애학생들과 전 세계의 장애인 동료들은 전문가들보다 장애인의 생활에 대하여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믿게 됨.

2) 이론적 배경

동료상담은 재평가 카운슬링과 코우 카운슬링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으며, 상담 기법으로는 A.A(Alcholoic Anonymous)기법을 활용함.

(1) 재평가 카운슬링

재평가 카운슬링의 목적은 지성의 회복에 있으며, 시간을 대등하게 분배하여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카운슬러의 역할을 동등하게 하는 것에 있음. 동료상담에서 대등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카운슬러 측과 내담자가 대등하며,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는 동료의식을 함께 가지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2) 코우 카운슬링

코우 카운슬러(Co-Counselor)에서 'Co'란 '서로' 또는 '협조하는 것'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시간을 대등하게 나누어서 서로의 역할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3) A.A(Alcholoic Anonymous)

A.A는 알코올 의존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하여 서로가 서로를 카운슬링(Counselling)하고 서포터를 하는 규범을 만든 것에서 유래 한 것임.

이후에 자립생활운동에서는 장애인당사자가 서로를 서포터 하는 동료상담의 기법으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음.

3. 동료상담의 필요성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장애인의 문제는 소위 전문가라 불리 우는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이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문제해결을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해결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면서 장애인당사자들의 반발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됨.

즉 여성의 문제의 주체가 여성이며, 흑인의 문제의 주체가 흑인인 것처럼, 장애인 문제의 주체는 장애인 당사자임을 주장하게 됨.

이러한 움직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이미 시작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영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음. 더 이상 비장애인 전문가가 그 짧디 짧은 의료적이거나 이론적 전문성으로 장애인의 삶을 좌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삶은 장애인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누구의 삶이든 그 삶의 경험이 진정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때문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위한 자립생활은 자신의 삶의 험을 가진 장애인 삶의 전문가를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함. 또한 자립생활 안에서의 동료상담은 바로 그 전문성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했음. 그 어떤 전문가보다 뛰어난 또 다른 나의 다른 이름인 동료라는 전문가로부터 살아 숨 쉬는 삶의 기술과 지혜를 공유 받는 것이 동료상담이라고 할 수 있음.

4. 용어의 정리

1) 관계 만들기(Relation)

처음 만난 사람과 스킨쉽을 통해 가까워질 수 있고, 어색한 감정이 관계 만들기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시간임. 또한 참가자간에 친해지는 시간으로 자기 소개 시간임.

방법 -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거나, 포옹하면서 인사를 교환. 1:1짝을 지어서 세션형식으로 서로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상황과 장애유형에 따라서 관계 만들기의 형식들이 변경될 수 있음.

2) 새로웠던 것과 좋았던 것(New & Good)

자신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을 상기시켜 일상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일깨워 줌으로써 즐거운 맘으로 일정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 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자신의 삶의 작은 변화를 찾고 사회의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함.

방법 - 일정기간 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이나 사건들 중에 좋았던 것이나 새로운 것들을 1분이나 2분 동안 참가자들에게 말함.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의 기간으로 이전의 만남을 가진 후부터 현재까지의 일어났던 일들을 참가자들에게 말함.

3) 세션(Session)

둘씩 짝을 지어(홀수일 경우 한 그룹은 세 명이 할 수 있음) 동료상담가가 되기도 하고 내담자가 되기도 하는 역할을 교대함. 듣는 사람(동료상담가)은 말하는 사람(내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말하는 이(내담자)에게 더 애착을 갖고 지지한다는 것

을 표현함.

말하는 이는 안심하고 자신의 상처에 맞서서 감정을 해소하며, 여기에서 듣는 이의 역할은 말하는 이가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경청을 하고, 말하는 이에게 '나는 당신을 믿고 있어요'라는 느낌을 주도록 노력해야 함. 시간은 보통 10-15분간하며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4) 텐션 백(tension-back)

세션 중간에 역할이 바뀌는 단계에서 듣는 이(동료상담가 역할)가 말하는 이(내담자 역할)에게 세션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깊어 빠져 들었을 때, 주제와 상관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됨. 이때 세션 주제와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함으로써 말하는 이가 감정을 환기시키고 듣는 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돌릴 수 있음.

5) 역할극(Role Play)

장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 해결하기 힘들지만 대리만족을 주기 위한 방법이며, 어떤 상황에 직면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역할극이며, 동료나 동료상담가를 상대로 자신의 의지를 전달함. 역할극을 보고 연기자와 관람자 모두 각각의 기분을 표현하며, 발견하게 된 것, 좋았던 것 등을 서로 의견교환 함.

6) 시현[示現](demonstration)

리더와 참가자1인이 모든 참가자들 앞에서 1:1세션을 하는 것을 말함. 이때 시현하는 사람은 주로 감정해방이 필요한 참가자를 선택하여 감정해방을 하게 하는 방법 임. 이때 다른 참가자가 같이 동요되어 자신도 감정해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7) 패턴(Pattern-성향[性向])

사람들이 자라면서 굳어지게 되는 성격의 전형적인 부분임. 그리고 이 부분은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며, 특히나 장애인은 성장하면서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으면서 자라왔으므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패턴을 가지기 쉬움.

어떤 억압에 닥쳤을 때 지금까지 반응한 것 중에서 제일하기 쉬운 형태, 자기가 이렇게 해도 만족스러운 상태로 그 억압에 반응을 함. 그런 반응이 자기에게도 용납이 된다면 비슷한 억압을 받았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며, 똑같은 반응이 계속 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패턴으로 굳어져 버리게 됨.

8) 생각하기와 듣기 (think & listen)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각 사람이 자신의 생각들을 짧게 말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장애로 인한 여러가지 경험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임. 세션 이후에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기도 함.

9) 좋았던 것 배웠던 것

그 날 했던 동료상담 중에 좋았던 것과 배웠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날을 준비하는 것임.

10) 칭찬하기 (어프리시에이션 Appreciation)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보다는 단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도 자신의 장점을 잘 알지 못하고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에, 칭찬하기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찾고 타인의 장점도 찾는 시간임.

방법 - 칭찬하기는 자기가 누군가를 선택하여 자기가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좋았던 느낌 잘한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며, 한사람이 모든 참가자 중앙으로 가서 각 참가자 앞으로 가서 칭찬받거나 제자리서 모든 참가자에게 받는 방법과 자신의 양옆에 참가자만 칭찬하고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형식들을 변경할 수 있음.

5. 동료상담의 목적

동료상담의 목적은 자기신뢰의 회복을 통해 인간관계를 재구축하고, 이로 인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함. 이는 장애 수용과 상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기반으로 정보 교환, 원조, 소개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음.

1) 자기신뢰 회복

장애를 가진 우리들 자신의 신뢰를 회복하여 스스로 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애에 대하여 수용하고 당당해야 함(자신의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타인의 장애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2) 인간관계 재구축

자기신뢰 회복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믿음을 토대로 주위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것임. 이러한 변화는 적극적인 서포터 관계를 동료상담가는 물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임(가족, 이웃, 직장, 사회의 역할 안에서 당당해지는 것).

3) 사회 변화

주변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재구축한 장애인은 당당해 진 모습으로 롤 모델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억압적인 사회를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말함. '장애인은 집에서만 사는 사람. 누군가 돌봐 주어야 할 사람' 등의 편견이나 오해를 없애면서 주변의 환경을 바꾸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임.

6. 동료상담의 약속

1) 시간을 대등하게 할 것

동료상담에서는 서로 동료상담가와 내담자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며,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 한정된 시간을 서로가 대등하게 배정하여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자세를 기르고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

누구나에게 시간은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대등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임(장애인들은 특히 생활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은 자신의 말을 잘하지 않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지 않아서 대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대등한 시간을 가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이야기 할 수 있게 하며, 언어장애인에게는 시간을 더 주어야 함).

2) 비밀엄수, 이야기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 것

서로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없을 것이며, 비밀의 엄수는 모든 상담의 기본임.

3) 부정하거나 비판을 하지 말 것

그 동안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부정이나 비판을 받은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동

료상담에서는 장애를 있는 그래도 바로보고 인정하며, 서로의 환경이나 신체적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함. 또한 교육을 많이 받거나 경험이 많다고 하여 상대방의 결정이나 행동을 비판한다면 결코 동료관계는 형성될 수 없는 것임.

4)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말 것

서로 대등한 조건이라는 것은 자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대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의 문제를 털어 놓을 수 있는 것이며 서로의 위치를 먼저 인정하고 시인함 속에서 대등함이 있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는 서로의 교감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장애로서의 감정이 억압인 상태를 결코 해방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좋은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음.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것은 그 동안 지시 받거나 통제 당한 것과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으며 자립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박탈할 수도 있음. 그럼으로 조언이나 충고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공감하고 믿어 주어야 함.

5) 다음은 동료상담에서 지켜주기를 원하는 권고사항이다.

- 술, 담배, 단 음식 등 인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음식은 금할 것

동료상담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느껴야 하며, 자신이 갖고 있던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술, 담배 등 인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기호식품을 먹게 되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질 수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에 대한 일상적인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금해야 함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하는 자신의 몸 상태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음).

7. 동료상담의 자세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묵묵히 들어만 주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 것인지 느낄 만큼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확히 말하는 사람에게 신뢰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어떤 내담자라도 자연히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음. 또한 동료상담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이 상담의 도구로 사용됨. 언어만이 아닌 상담가의 눈빛, 목소리, 표정 하나하나가 상담의 도구임.

1) 듣는 사람의 자세

(1) 내담자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
(2) 내담자를 신뢰할 것
(3) 적절히 질문하는 것(개입하기-호기심에서 질문하지 말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잘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질문)
(4) 감정의 해방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5) 조언을 하지 말 것
(6) 내담자의 문제에 같이 휩싸이지 말 것

2) 말하는 사람의 자세

(1) 완전히 자기만의 시간이라고 인식할 것
(2) 안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라고 인식을 할 것
(3) 자기가 안고 있는 고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할 것
(4) 감정표현을 많이 할 것
(5) 자신의 패턴(바탕-자신의 행동에 영향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

8. 동료상담의 구조

1) 개별상담

개별상담은 동료상담의 시작과 끝이며, 기본 중의 기본이며, 원활한 개별상담이 충실이 이루어져야 기타 동료상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타 동료상담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음. 개별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실시함.

(1) 초기 면접
(2) 일상 상담
(3) ILP 진행

2) 집단동료상담

집단동료상담은 2박3일 과정으로 일정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정해진 주제로 세션과 생각하기와 듣기, 강의 등을 통해 감정해방을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자연치유하여 자신감 회복하여 역량강화 시킴.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 지역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생활을 위한 동료상담의 역할은 물론 동료 간 지지와 지원을 강화시키는 것임.

(1) 기초과정

동료상담의 목적, 역할과 규칙 등을 알고 참가하면서 그 동안 장애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문제로만 알고 살았던 것들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를 느끼게 하는 사회(편견이나 오해, 주변 환경의 불편함)의 문제임을 알게 하고 같은 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인의 문제였음을 알게 함.

또한 자신이 그 동안 장애인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능력을 찾게 하여 자신감을 회복하여 자립생활로 유도하는 것임.

(2) 심화과정

장애를 갖고 성장하면서 또는 살면서 사회에서 받았던 여러 억압과 차별 속에서 발생되는 자신의 내면에 상처로 인한 자신의 패턴을 찾아서 치유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자기주장을 잘하게 되어, 리더쉽을 발휘하여 동료를 지지,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

(3) 일일 세미나

하루 한 주제 또는 두 주제 정도의 내용으로 한 주 또는 한 달 과정으로 진행되는 집단 동료상담으로써 대부분 숙박이 어렵거나 시간상의 문제로 집단동료상담에 참여하기 어려운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나 참가자들의 욕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함.

(4) 일일동료상담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 집단동료상담으로써 일일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테마로는 장애유형별 동료상담이나 남, 여 성별 동료상담, 기혼자 동료상담, 미혼자 동료상담 등 사람의 신분, 자격을 테마로 하는 상담과 사랑, 취업, 육아, 취미 등 관심사를 테마로 하는 상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테마에 맞는 주제 개발이 과정의 승패를 좌우함.

3)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자립생활의 핵심인 동료상담가를 길러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우선 집단동료상담(기초, 심화)을 이수한 자로써 기존 동료상담가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입문강좌(2박3일), 장기강좌(2박3일 2회), 양성강좌(4박5일) 등을 실시하며, 숙식을 함께하는 과정으로 모두 같은 일정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함.

9. 동료상담가의 역할

1) 내담 장애인의 감정해방을 위한 감정이입(empathy) 즉 공감형성

동료상담가는 동료상담이 내담 장애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있는 그대로' 존중 하면서 내담자의 감정해방을 위한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음. 즉 내담자의 속마음을 정확하고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내담 장애인의 입장에서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함.

2) 사회 참여를 위한 내담 장애인의 역량(strength)을 강화

동료상담가는 내담 장애인의 강점을 보고 접근하면서 내담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중시하며, 존엄성과 존중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즉 동료상담가는 '강점관점'을 기반으로 내담자를 역량 강화 시켜야 함.

3) 신뢰를 바탕으로 내담 장애인과 '관계를 쌓아가는 일'

동료상담가와 내담자가 효과적인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공동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계는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함. 즉 상담초기는 내담자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친절해야 하는 것처럼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함. 또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여 영원한 지지자로 남는 역할까지 포괄하여야 함.

4) 동료지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필요

동료상담가는 동료지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즉 배려하는 기술, 연계기술, 연대기술 등 다양함. 이러한 기술들을 동료상담가와 내담자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동료상담가와 내담자가 대등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음.

제 II 장

개별동료상담

제Ⅱ장 개별동료상담

1. 개별동료상담의 정의

개별동료상담은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동료상담가와 내담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담과정임.
개별동료상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되고 1회성이 아니라 내담자의 욕구와 필요한 지원에 따라 주제와 진행과정이 연속됨으로 집단동료상담 및 양성과정과 구분함.

2. 개별동료상담의 목적

개별동료상담은 장애인에게 정서지원, 정보제공, 자원연계를 함으로써 자기결정, 자기선택, 자기책임을 강화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3. 개별동료상담의 방법

상담의 욕구는 장애, 환경,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고 또한 자신의 문제를 의식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함.
대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내담자의 요청이나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필요한 지원, 자원연계 등의 연계가 요구되므로 동료상담가 만 아니라 센터의 역할부서가 함께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함. 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욕구와 결정이 가장 큰 요소임.
동료상담가는 이러한 내담자의 욕구와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과정이 내담자 주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장애를 가진 내담자는 주체적 삶이나 결정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동료상담가의 역할이 중요함.

4. 유형별 개별동료상담

1) 재가 장애인

사회활동이 없는 재가 장애인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지역과의 교류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교류가 있더라도 특정한 것에 국한되어 있음.

(1) 재가 장애인의 개별 동료상담시 중요한 점

① 가족과의 관계에 주목(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비율이 높음)

② 자존감 저하로 인한 주변과의 관계회복과 장애인식 향상을 도움.

③ 자기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탐색 유도

④ 자립생활의 선배나 같은 장애와 문제를 가진 동료를 접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만남을 유도함.

2) 중도장애인(후천적 장애인)

중도장애인이 되면 대개 충격, 부정, 분노, 우울, 적응 및 수용의 6단계를 거침. 따라서 내담자의 어느 단계에서 센터나 동료상담가가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 상담이나 동료상담가의 태도가 달라져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고려하여야 함.

(1) 충격, 부정, 분노, 우울단계까지는 외부와 타인의 접촉을 기피하고 비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억지로 만남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 함. 갑자기 변화된 환경과 과정을 겪고 있는 적응이전단계에는 동료상담에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무리하게 상담을 진행하기 보다는 꾸준한 만남을 유지하면서 지켜봐주는 자세가 필요함.

(2) 수용단계에서는 동료상담가와 같은 원인과 장애를 가진 동료라면 동료상담과정에서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가족이나 시설에 도피하거나 안주하지 않도록 많은 서포터가 필요함.

3) 시설 거주 장애인

거주시설은 외부정보에 제한적이고 거주 장애인들의 장애가 중증인 경우가 많음. 따라서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만날 때는 개별적인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됨.

초기면담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 성격 등을 알아보고. 시설 내의 분위기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거주하는 시설의 특성과 분위기에 따라 거주 장애인의 관심사와 자립생활의 욕구가 다를 수 있음. 동료상담 시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꾸준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는 동료상담가의 정기적인 방문 자체가 정보제공과 외부와의 연계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것을 전달하거나 빠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음.

거주 장애인에게 정보나 자립생활을 알려주거나 할 때에는 단기 외부체험이 효과적임. 자립생활의 권리와 함께 의무나 어려운 점 또한 정확히 전달해야 함.

거주 장애인들의 관심이나 고민은 한정적이고 같은 거주 장애인에게 제한된 경우가 많음. 시설담당자의 간섭과 관리가 많으므로 동료상담가의 이야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

4)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름. 장애로 인하여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인지 등 소통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두 가지가 종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개별적인 차이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많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다른 장애에 비하여 소통이 원활히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함.

발달장애인과 개별동료상담을 진행 할 때는 의사소통에 유의하여 가면서 진행하여야 함.

(1) 간단하게, 직접적으로(하나의 질문, 하나의 대답)형식의 의사소통이 필요함.
예) 복도에서 뛰면 미끄러질지 모르니 걸으세요. → 복도에서는 걸으세요.

(2) 요약된 표현이나 축어를 피하고 구체적으로 표현
예)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겠어요? → 버스, 택시, 지하철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하시겠어요?

(3) 시각적 보조물 사용
예) 그림단어카드, 쇼핑리스트

(4) 당사자의 대화패턴 파악
예) 결정에 관계없이 같은 답을 반복할 경우 → 그림을 찍거나 종이에 쓰는 방식으로 확실한 답변을 유도

(5) 선입견을 갖지 않고 육하원칙, 공 지각을 묻지 않음
예) 발달장애인의 수 개념과 공 지각 개념이 약하므로 날짜나 시간의 인지가 어려움, 법정증인 시 불리함

(6) 자기선택권, 결정권의 존중
예) 대화 시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맞추어 그림이나 사진카드, 실물, 제스처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존중해야 함

5. 개별동료상담 진행과정(센터의 역할 중심)

1) 동료상담

동료상담은 보통 내담자의 장애로 인한 고민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상담요청이 있을 때에 이루어짐. 내용에 따라서 단기상담과 장기상담으로 진행 되고 있음.

동료상담가는 단순히 대화가 필요한 것인지 실제로 정보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료상담가는 내담자에게 끌려가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되 내담자에게 동료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함.

동료상담은 심리적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심리적 지원은 내담자의 자기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다 " "나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라는 식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족과의 관계 회복, 성이나 성적 충동을 느끼는 고민에 대한 서포터, 활동지원인에 대한 관리. 그 외 인간관계 안에서 심리적인 불안을 동료상담을 통해 해결함.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지원이 필요함으로 센터 내에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동료상담가는 내담자와 지속적인 만남으로 문제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센터에서는 동료지원 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해결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함.

2) 정보제공

정보제공을 위한 동료상담은 내담자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먼저임.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찾고 내담자에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논의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참여는 반드시 있어야 함. 정보제공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1) 자립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자원 연계 활용방법
(2)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나 선배에게 구체적인 정보와 조언 얻기
(3) 주택에 관련된 정보와 부동산 가격에 대응하는 방법
(4) 연금·수당 등, 경제적인 독립에 관련된 것

(5) 직업, 일에 대해서
(6) 활동지원서비스(인)와 관련된 정보와 경험
(7) 여행, 여가활동에 관련된 정보
(8) 교통이용과 정보(저상버스, 열차할인 등), 이동, 보장구(자부담 지원)관련 정보
(9) 권익옹호에 관련된 정보, 권익옹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3) 자립생활프로그램(ILP Independent Living Program) 과정

ILP는 자립생활을 위한 훈련과정이며 사회경험이 없는 내담자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임. ILP의 모든 과정에는 내담자의 주도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센터와 동료상담가가 이를 서포터 함.

ILP는 내담자의 장애와 환경에 따라 목적과 내용이 다양하며, 비교적 단시간 내에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ILP이고 긴 시간을 두고 목적달성을 하는 것은 장기 ILP임.

(1) 단기 ILP
예) 교통시설이용, 은행, 음식 만들기, 주택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음. 일반적인 것도 장애를 가진 내담자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진행해야 함.

(2) 장기 ILP
예) 한글공부, 취업, 주택구입 및 개조, 집이나 시설에서 독립 등 단기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없는 것과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연계를 말함. 보통 장기간의 목적을 가진 ILP는 1차, 2차 등과 같이 중간 목적을 세우고 점검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함.

(3) 센터의 ILP과정
기면접(동료상담) → 단기, 장기대상자 선정 → 목표설정 및 개별화된 맞춤계획 수립 → ILP진행 및 점검(평가회의) → 평가(종결 및 재실시)

모든 ILP의 전제조건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권리의식과 자존감회복, ILP과정에서의 수평적인 동료관계, 개인에 맞는 훈련과정, 지역과 민간자원의 개발 및 연계이며, 모든 과정에 동료상담이 수반되어야 함.

초기 개별동료상담의 흐름

초기상담 (내방. 방문. 전화 등)	○ 거주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중 자립희망자를 면담 ○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과 어려움을 자기책임으로 인내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장애인
↓	
동료상담	○ 자기생각과 기분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자기신뢰를 회복시킨다. ○ 자기신뢰에 의거한 자기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자립까지 동료상담가가 롤 모델로 지원한다.
↓	
회원등록	○ 자립에 대한 이념. CIL의 활동을 이해한다.
↓	
자립생활 정보제공	○ 행정절차에 맞게 자립생활을 준비한다.
↓	
자기 주장하기	○동지. 친구의 존재를 알게 된다. ○자기의 생각이나 기분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 * 자립생활기술훈련으로 연결할 때 유효
↓	
자립생활기술훈련	○ 금전관리에 대하여(수입과 지출) ○ 활동보조에 대하여 ○ 주택에 대하여 ○ 자립지원 제도에 대하여 등 일상생활 체험

제 III 장

집단동료상담

제Ⅲ장 집단동료상담

1. 집단동료상담의 정의

1) 장애를 갖은 동료들이 일정한 형식 아래 정해진 주제로 세션과 생각하기와 듣기, 미니강의 등을 통해 감정해방을 함.
2)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자연치유하여 자신감 회복하여 역량강화 함.
3)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동료 간 지지와 지원강화 함.

2. 집단동료상담의 목적

1) 자기신뢰회복
2) 인간관계 재구축
3) 사회의 변화

3. 집단동료상담의 필요성

1) 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
 장애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문제로만 알고 살았던 것들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를 느끼게 하는 사회(편견이나 오해, 주변 환경의 불편함)의 문제임을 알게 하고 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인의 문제이다는걸 인식시킴.

2) 장애에 대한 문제 인식
 장애인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경험 부족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시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능력을 찾게 하여 자신감을 회복하여 자립생활로 유도하는 것

3) 자기 인식
장애를 갖고 생활하면서 사회에서 받았던 여러 억압과 차별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
자신을 신뢰하고 타인에게 신뢰받음으로 인하며 주위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형성
자기주장을 잘하여서 리더쉽을 발휘하여 동료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능

4. 집단동료상담의 규칙

1) 시간을 대등하게 할 것
2) 비밀엄수, 이야기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 것
3) 부정하거나 비판을 하지 말 것
4)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말 것

※ 동료상담에서 지켜주기를 원하는 권고사항
인위적인 감정 조절하는 기호식품(술, 담배, 단음식 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영향을 주므로 금지함.

5. 진행과정 및 내용

1) 기초과정
동료상담의 목적, 역할과 규칙 등을 누구라도 알기 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각자 마음의 문을 열고 감정해방을 통해 장애로 인한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료상담 의미를 알게 함.

(1) 대상 : 동료상담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
(2) 기간 : 2박3일 (총20시간)
(3) 진행일정: 첫째 날 주제명시
(4) 기초과정 내용
① 관계 만들기
처음 만난 사람과의 어색한 감정을 해소 및 친해지는 시간으로 자기소개 시간
닉네임(별명) 정하기
본인의 이름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기 위

함임

가. 자기소개

나. 닉네임(별칭) 설명

다. 장애로 인해 배려 받고 싶은 점

라. 참가하게 된 동기와 얻고자 하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 함

② 자립생활이란

자립생활이란 자신의 모든 삶에서 자신이 선택권과 결정권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또한, 자립생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족,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하여, 자기의 역할을 유지할 능력을 최대한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빈틈이 없는 일련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권리를 누리는 서비스 사용자라는 적극적인 소비자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자립적 삶(Living Independently)"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이는 한국적 자립생활의 철학일 수 있을 것임. 장애인당사자가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지역사회운동이나 지역사회내의 정치세력화, 더 나아가서 정부정책의 문제, 환경 변화의 문제 등에 대하여 그 기본적 당사자성에 바탕하여 참여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③ 동료상담이란

장애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공통의 상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소통 및 대화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지향하는 자립생활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험공유, 감정해방, 정보제공 등의 과정을 통한 역량강화 및 자기주체성 회복

④ 인간의 본질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 존재이다.

인간은 지성이 충만한 존재이다.

인간은 창조성이 넘치는 존재이다.

인간은 기쁨이 넘치는 존재이다.

인간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동료상담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를 인간의 본질이라 보고 사회에서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미처 느끼기 전에 내 안에 묻혀버려 내가 정말 이런 본질을 갖고 있는지 의심함.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

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

⑤ 감정해방

감정은 슬픔, 괴로움, 안타까움 등을 느끼고 그런 느낌이 복받치면 눈물을 흘리고, 기쁘거나 즐거우면 싱글벙글 하거나, 쑥스러우면 생각지도 않게 웃음이 나오는 것을 말함.

감정해방은 우리의 마음에서 느끼는 기쁨, 슬픔, 괴로움, 안타까움 등을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겉으로 표출됨으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임.

⑥ 장애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현실에서, 자신의 장애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수용하기 위한 것임.

⑦ 서포트그룹 만들기

동료 간 지지모임을 뜻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공동의 주제나 관심거리를 가지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함.

서로의 친목과 성장을 도모하며 집단동료상담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자조모임의 초기형태

⑧ 교류회

서포터 그룹에서 정해진 주제를 모든 참여자들(스텝, 활동지원인)이 함께 발표하는 시간이며, 동료상담 진행 중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동료상담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비장애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임.

⑨ 자립생활계획(ILP-Independent Living Program)

자립생활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자신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시간임.

⑩ 칭찬하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도 자신의 장점을 잘 알지 못하고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칭찬하기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찾고 타인의 장점도 찾는 시간임.

2) 심화과정

장애를 갖고 생활하면서 다양한 억압과 차별로 인해 받은 상처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패턴과 억압을 찾아내어 제거함으로써 자신을 신뢰하고 리더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임.

(1) 대상 : 집단동료상담 기초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2) 기간 : 2박3일 또는 3박4일(20시간)
(3) 진행일정 :
① 첫째 날
동료상담이란(동료상담의 이론과 의미 복습). 억압에 대하여(시범(demontration)
② 둘째날
패턴에 대하여(어린 시절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지난모습을 회상하며 세션과 시현 형식), 역할극을 통한 자기주장하기, 신뢰에 대하여(세션과 시현), 지지와 지원 주고 받기
③ 셋째 날
리더쉽에 대하여, 마무리

(4) 내용
① 억압에 대하여
장애를 갖고 살면서 사회, 가족, 나이 등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찾는 것

② 패턴에 대하여
패턴이란 장애 때문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 나타나는 일정한 반응으로 자신을 억압하는 행동을 말함.

가. 잠재적 패턴
: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비슷한 상황에 발생했을 때, 생기는 감정과 행동
나. 만성적 패턴
: 일상적인 상처로 인하여 공격적이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것

개입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패턴을 찾게 하여 패턴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게 함.

③ 신뢰에 대하여
신뢰하고 싶고 신뢰받고 싶은 생각은 당연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타인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위함임.

④ 자기주장하기

일상생활에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할 수 있게 함.

가. 자기주장 원칙

-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솔직해야 한다.
-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 자기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나. 자기주장 할 때

- 포인트만을 이야기한다.
- 포인트를 반복한다.
- 상대방의 기분을 받아들인다.
- 내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이야기한다.
- 어떤 것이 좋은지 교섭한다.

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할 때

- 부탁을 받았을 때 자기의 기분이 어떤지 살핀다.
- 거절하려고 결정했으면 간결하게 솔직하게 거절한다.
- 자기의 기분을 전하고 상대의 기분을 듣는다.
-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타협안을 제시한다.
- 화제를 바꾸거나 그 자리를 떠난다.

⑤ 지지를 주는 것과 받는 것

인간은 서로가 지지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므로 우리 또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지지를 충분히 받고 주위사람들에게도 지지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함.

⑥ 리더십에 대하여

자기 삶에 리더가 될 수 있는 본질을 알아보고 자신 인생에 리더십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제 IV 장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제Ⅳ장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1. 양성과정의 정의

자립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장애인이 자신처럼 적응하고자 하는 다른 장애인을 지원하고 공감하고 필요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2. 양성과정의 목적

장애인의 자신감 회복을 돕고 자립생활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동료상담가 배출

3. 양성과정의 필요성

동료상담의 체계적 지원 방법을 습득한 동료상담가 배출의 시급

4. 양성과정에서의 유의사항

1) 동료상담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2) 양성과정 이수하고 나서 개별동료상담 하는 것임.
3) 추천를 통하여 참여 할 수 있음.
4) 세션 20시간 이상 할 것

5. 양성과정의 이론과 실제

1) 동료상담가 입문강좌

(1) 참가 자격

① 집단동료상담-기초.심화과정를 이수하고 있을 것
② 동료상담위원회가 주최하는 연수에 참가 가능할 것
③ 동료상담가 입문강좌의 모든 일정에 참가 가능할 것
④ 자립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진행과정 및 교육일정

	과 목	내 용	시간
1	이해	자립생활의 이념, 역사	2시간
2	동료상담의 역사	동료상담의 흐름	1시간
3	동료상담의 의미 이해	동료상담의 전체 내용을 이해	2시간
4	동료상담가의 역할 이해	동료상담가가 해야 할 것	2시간
5	장애유형의 이해	법적 장애유형과 등록되지 못한 장애 이해	4시간
6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이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센터가 해야 할 것	2시간
7	자립생활센터의 주요사업 이해	동료상담, 정보제공, 자립생활프로그램, 권익옹호 외 센터의 사업에 따른 모든 내용	8시간
8	동료상담 방법 이해	동료상담에 대한 내용	2시간
9	동료상담가로의 자아성찰	원고쓰기 과제-자기성찰, 나는 어떤 동료상담가가 되고 싶다.	1시간
총 이수 시간			24시간

(3) 이수 후 활동사항

개별 동료상담 진행, 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사업 담당

2) 장기강좌

(1) 참가 자격

① 집단동료상담-기초.심화과정를 이수하고 있을 것

② 개별동료상담을 1년 이상 또는 200회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

③ 동료상담위원회가 주최하는 연수에 참가 가능할 것

④ 장기강좌의 모든 일정에 참가 가능할 것

⑤ 자립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리더와 서브리더의 자격

① 리더

가. 집중강좌 리더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동료상담위원회에서 리더로 인정받을 것 (동료상담위원회의 동료상담가 인정과는 다름)

나. 총 40시간 동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② 서브리더

가. 집중강좌 리더경력을 쌓을 것

나. 리더를 신뢰하고, 리더가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을 것

(3) 리더와 서브리더의 역할

① 리더

가. 프로그램을 만든다.

나. 수강생 전체를 주목하면서, 강좌를 진행한다.

다. 수강생의 패턴에 개입한다.

라. 수강생의 역할 모델이 된다.

마. 강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브리더나 수강생에게 지시한다.

② 서브리더

가. 리더를 주목하고, 보조한다.

나. 리더의 패턴에 개입한다.

다. 리더 옆에서 리더의 편이 되어 절대 리더를 고립시키지 않는다

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를테면,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 격렬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신경 쓴다.

마. 수강생 개개인을 주시한다.

리더와 서브리더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대등한 입장에서 강좌를 만들고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강좌리더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동료상담 위원회에 상담을 한다.

(4)테마별 교육 내용

	내용	방법	시간
	관계 만들기(Relation), 새로웠던 것과 좋았던 것(New & Good), 세션(Session), 텐션백(tension-back), 역할극(Role Play), 시현[示現(demonstration) 패턴(Pattern-성향[性向]) 생각하기와 듣기 (think & listen) 좋았던 것 배웠던 것 칭찬하기 (어프리시에이션 Appreciation)	강의 형식으로 내용설명	2시간
관계만들기	2박 3일 동안 또는 동료상담 하는 동안 친해지기 위한 시간으로 참가자 소개	10분 동안 모든 참가자와 자유롭게 인사하기, 2분씩 1대1로 파트너를 정해서 자기 소개하기, 모두 모여 자기 파트너를 소개하기	1시간
동료상담이란	동료상담의 정의, 역사 및 배경, 목적, 규칙, 역할, 필요성	미니강의, 세션 2회, 생각하기와 듣기	3시간
인간의 본질	동료상담에서의 인간의 본질 5가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 지성이 넘치는 존재, 창조성이 넘치는 존재, 기쁨이 충만한 존재, 힘이 있는 존재	미니강의, 세션, 생각하기와 듣기	1시간
감정해방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감정표현, 시현하기, 미니강의, 세션, 생각하기와 듣기	2시간
장애에 대하여	모든 장애 특성이해, 장애 경험 공유, 장애로 인한 차별과 억압 공감	역할극, 미니강의, 세션, 생각하기와 듣기	2시간
서포터 그룹활동 만들기	장애로 인한 고민, 문제, 관심사별로 그룹활동을 통해 해결점 찾기	소그룹 활동	2시간
ILP	일상생활 체험을 통하여 자립생활	자기계획세우기(장. 단기	1시간

	내용	방법	시간
	필요성이해	목표설정)	
칭찬하기	참가자의 장점을 찾아주고 자신이 모르던 자신의 장점찾기	릴레이 형식, 1대 전체 참가자, 양쪽 옆	1시간
동료상담가의 자질과 역할	동료상담가 기능적 역할 동료상담가가 가져야 할 자질	강의 형식	1시간
자기성찰	동료상담가로써 자기 돌아보기	원고 작성, 발표	2시간
억업에 대하여	대중적인 사회에서 주는 억압을 찾고, 그로인한 자기가 자기를 억압하는 것 찾고 해소	미니강의, 세션, 생각하기와 듣기	2시간
패턴이란	자신의 행동이나 언어 등에 영향을 주는 지난 시간의 기억찾기	시현하기, 미니강의, 세션, 생각하기와 듣기	2시간
신뢰에 대하여	타인과 상호간의 신뢰 찾기, 자신을 자신이 믿는 것 찾기	시현하기, 미니강의, 세션, 생각하기와 듣기	2시간
지지를 주는것과 받는 것	타인에게 지지를 잘 받음으로 자신도 타인을 잘 지지하고 있음을 안다.	미니강의, 세션, 생각하기와 듣기	1시간
리더쉽에 대하여	실제 유명한 리더들을 상기시키고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리더하고 있나를 찾음.	미니강의, 세션, 생각하기와 듣기	2시간
자기주장하기	자기의 주장 방법 의사소통 방법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의견 관철시키기	역할극 미니강의, 세션, 생각하기와 듣기	2시간
역할극	역할극의 효과, 방법	강의, 실제 역할극	1시간
세션	1대1로 동료상담		30시간
총시간			60시간

(5) 이수 후 활동사항

집단동료상담 서브리더, 리더, 개별 동료상담가 슈퍼바이저

(6) 성공사례

딸 일곱에 아들하나 있는 집에 딸, 게다가 장애인…….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라는 존재는 없었어야했다.
방구석에 저 마치 밀어놓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존재, 철저하게 인간 나라는 존재는 숨기고 장애인인 나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였다.
우리 집에 친척이나 낯선 손님이 오면 얼른 몸부터 숨겨야했고 어쩌다 반항이라도 하면 '꼴 같지도 않은 게 꼴 값 떤다.' 는 말이 싫어 늘 화가 나도, 억울해도, 슬퍼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 나였다.
그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한건 바로 IL에서 동료상담을 접하고 나서부터이다 .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는 죄스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장애는 내 탓도 우리 가족의 탓도 아니라는 것.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불행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고 난 지금.
이제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억울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내가 되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울 때 들었던 말 '꼴 같지도 않은 게 꼴 값 떤다.' 라고 말 한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꼴이 어때서"라고…….

3) 양성강좌

(1) 참가 자격

① 동료상담위원회와 관계하는 집중·장기강좌를 수강하고 있을 것
② 동료상담위원회가 주최하는 연수에 참가 가능할 것
③ 양성강좌의 모든 일정에 참가 가능할 것
④ 자립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리더와 서브리더의 자격

① 리더

가. 집중강좌 리더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동료상담위원회에서 리더로 인정받을 것 (동료상담위원회의 동료상담가 인정과는 다름)
나. 총 40시간 동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② 서브리더

가. 집중강좌 리더경력을 쌓을 것

나. 리더를 신뢰하고, 리더가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을 것

(3) 리더와 서브리더의 역할

① 리더

가. 프로그램을 만든다.

나. 수강생 전체를 주목하면서, 강좌를 진행한다.

다. 수강생의 패턴에 개입한다.

라. 수강생의 역할 모델이 된다.

마. 강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브리더나 수강생에게 지시한다.

② 서브리더

가. 리더를 주목하고, 보조한다.

나. 리더의 패턴에 개입한다.

다. 리더 옆에서 리더의 편이 되어 절대 리더를 고립시키지 않는다.

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를테면, 자기 내부에 틀어박히는 사람, 격렬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신경 쓴다.

마. 수강생 개개인을 주시한다. 반면, 리더는 전체를 우선적으로 본다.

주리더와 서브리더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대등한 입장에서 강좌를 만들고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강좌리더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동료상담 위원회에 상담을 한다.

(4) 진행과정 및 교육일정

① 대상 : 장기강좌 주리더나 서브리더가 되고자한 장애인(단 3인 이상의 관계자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② 기간 : 전 40시간, 최소한 36시간은 필요

③ 양성강좌 실시하는 방법

가. 숙박이 없는 경우 : 1회 3~4시간씩 10회 진행

나. 숙박을 하는 경우 : 2박 3일씩 2~3번에 나눠서 실시

다. 숙박을 하는 경우 : 4박 5일 같이 합숙형태로 1회에 완성

(5) 진행과정과 교육과목

	과 목	내 용	시간
1		자기주장, 개방형 질문, 나 전달법	4시간
2	인권감수성	보편적 인권, 장애인 인권	8시간
3	공감과 경청	공감의 모든 내용, 경청	2시간
4	역할극	역할극의 효과, 방법	2시간

	과 목	내 용	시간
5	정책과 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2시간), 장애인복지법(2시간),국민기초생활보장법(2시간) 발달장애인법(2시간), 성인후견인제도(2시간)	10시간
6	장애학	장애학을 이해하기	8시간
7	상담기법 이론	상담기술, 방법	4시간
8	실습	1대1 세션 진행	10시간
총 이수 시간			50시간

(5) 이수 후 활동사항- 장기강좌 리더나 서브리더 활동

(6) 성공사례

저는 선천적인 병으로 인해 장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 생활환경이 불편했고, '비장애인' 친구, 어른들 속에 항상 도움 받아야 하는 존재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저의 장애를 창피해하고 주눅들어왔습니다.

그러다 7년 전쯤 여러 장애인 동료들을 만나면서 제 생활은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지역장애인분과 처음 지하철을 타보면서 혼자서는 못하는 줄 알았던 외출을 하게 됐고 곧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모임이나 사회활동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단순한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해오고 있는 동료들에게 고민이나 말하기 힘든 상처들을 털어놓고 그들과 공감하고 또 서로를 지지하기도 하면서 정서적으로 큰 원동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늦게 서야 깨달았지만, 동료상담에 매력을 느끼고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여기고 임해오고 있는 것은 제가 '동료'들로부터 얻은 지지와 도움들로 인해 나름의 큰 변화들을 겪었고, 내가 받은 것들을 또 다른 동료들에게 전해주고 또 함께 힘을 얻어가는 과정들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득 7년전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 예전보다는 자신감 있고 활발하게 살아가는 제가 있고 이런 제 주변에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겪어보지 못한 누군가가 저를 무조건 공감하고 신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좋은 조언과 상담을 잘하는 전문가보다도 같은 경험을 나눌 수 있고 느리더라도 같은 눈높이와 속도로 지켜봐주면서 이끌어주는 것이 동료상담이라 생각하고, 장애인에게는 더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V 장

동료상담가의 지침

제Ⅴ장 동료상담가의 지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동료상담위원회에서는 각종 동료상담 진행할 때 필요한 정보와 동료상담가에 대한 몇 가지 요건을 알리기 위해, 좀 더 알기 쉬우면서도 지역차가 생기거나, 각각의 리더와 관련자에 의해서 질의 차이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지침서를 만들었음.

1. 개별동료상담가의 자격기준

1) 장애인일 것
2) 자립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
3) 집단동료상담 기초과정(20시간), 심화과정(20시간)에 참여하고 동료상담가 입문 강좌(24시간)를 수료한 사람으로서, 남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
4) 일상적으로 세션이나 연수, 워크샵 등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
5) 자신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동료상담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수퍼바이져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집단동료상담 리더 및 서브리더의 자격기준

1) 장애인일 것
2) 자립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
3) 개별동료상담가 자격을 가진 자로 장기강좌를 수료한 사람으로서 남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
4) 개별동료상담을 1년 이상 또는 200회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일상적으로 세션이나 연수, 워크샵 등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
6) 자신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동료상담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수퍼바이져를 가지고 있는 사람
7) 집단동료상담 기초과정, 심화과정의 서브리더(40시간×5회 이상)를 진행한 사람
8) 원고 작성이 가능할 것

3. 집단동료상담 장기강좌 리더의 자격기준

1) 리더

(1) 집중강좌 리더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동료상담위원회에서 리더로 인정받을 것 (동료상담위원회의 동료상담가 인정과는 다름)
(2) 총 40시간 동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2) 서브리더

(1) 집중강좌 리더경력을 쌓을 것
(2) 리더를 신뢰하고, 리더가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을 것

4. 동료상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구성

(1) 위원장 1인
(2) 지역위원장 5인(실무자 5인)
(3) 운영위원 7 ~ 9인
(4) 위원(동료상담위원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한자연 회원센터)
(5) 한자연 담당자 1인

2) 역할

(1) 한국동료상담의 발전과 위상 정립
(2) 동료상담가 양성을 위한 사업
(3) 동료상담가 역량강화 사업
(4) 집단동료상담 리더 파견

5. 리더와 서브리더의 역할

1) 집단동료상담 리더

(1) 주리더

① 동료상담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장애인일 것
③ 자립생활을 하며, 주체적으로 생활을 이끌고 있을 것
④ 장애를 수용하고 있을 것
⑤ 집단동료상담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참여하고, 일정수준의 경력을 쌓았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⑥ 일상적으로 세션이나 연수, 워크샵 등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을 것
⑦ 주변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둘 것
⑧ 120 시간 이상 동료상담이나 세션 경력이 있을 것
⑨ 집단동료상담에서 서브리더 경력이 5회 이상일 것
⑩ 동료상담의 좋은 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파하고자 할 것

(2) 서브리더

① 원칙적으로, 동료상담의 요건을 갖출 것
② 장애인일 것
③ 자립생활을 하고 있거나 목표로 하고 있을 것
④ 어느 정도 장애를 수용하고 있을 것
⑤ 집중과정을 참여하고 일정수준의 경력을 쌓았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으며,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⑥ 일상적으로 세션이나 연수, 워크샵 등으로 훈련을 하고 있을 것
주변에 상담 가능한 사람을 둘 것
⑦ 60 시간 이상 동료상담이나 세션 경력이 있을 것
⑧ 리더를 신뢰하고, 리더가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을 것
⑨ 동료상담의 좋은 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파하고자 할 것

2) 양성과정 리더

(1) 주리더

집중동료상담 리더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동료상담위원회에서 리더로 인정받을 것

(2) 서브리더

① 집중동료상담 리더경력을 쌓을 것

② 리더를 신뢰하고, 리더가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을 것

3) 리더와 서브리더의 역할

(1) 주리더

① 프로그램을 만든다.

② 참여자 전체를 주목하면서, 진행한다.

③ 참여자의 패턴에 개입한다.

④ 참여자의 역할 모델이 된다.

⑤ 강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브리더나 참여자에게 지시한다.

(2) 서브리더

① 리더를 주목하고, 보조한다.

② 리더의 패턴에 개입한다.

③ 리더 옆에서 리더의 편을 들며 절대 절대 리더를 고립시키지 않는다.

④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를테면, 자기 내부에 틀어박히는 사람, 격렬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신경 쓴다.

⑤ 참여자 개개인을 주시한다. 반면, 리더는 전체를 우선적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주리더와 서브리더는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대등한 입장에서 강좌를 만들고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집필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연옥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류나연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권인자 전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안미선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선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발행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지원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출판자 동료상담위원회
발행일 2015년 12월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6층 602호
전화 02-785-7060 / fax 02) 785-7085 / kil-2007@hanmail.net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동료상담위원회